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7월 26일(금)

..(음력 6월 24일)..

Пятница

26 июля 2019г.

№ 29(11684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올해는 러시아에서 7월 28일을 상업인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템>쇼핑센터. 왼쪽으로부터 나자로와 엠게니야, 조옥두, 채형순 사업가다. 이들은 <로템>쇼핑센터에 개관일부터 매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취재 : 이에식 기자)

단신

주지사 후보로 5명 결정

7월 19일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서류검토 뒤 최종 주지사 후보명단에 5명이 올랐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여 9월 8일 주지사 선거에는 드미트리 젠킨(<콤무니스트 러시아>공산당 소속), 알렉세이 코르니엔코(러시아 연방 공산당 소속), 드미트리 코체르긴(사회정의 공산당 소속), ((드미트리 플레예르 - 러시아 자유민주당 사할린지부), 알레리 리마렌코 현 주지사 권한 대행(무소속)이 공식 출마했다.

사할린한인 1세 11명, 무료 진료 받으러 한국으로 떠나

오는 7월 27일 제4차 사할린 1세 동포 초청진료 사업으로 어르신 11명과 인솔가족보호자 등 총 20명이 한국으로 떠난다. 이번에 이들은 정선의 료재단의 온중합병원(부산)에서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 이 방문단은 주한인협회 청년부 이 세르게이 부장이 인솔할 예정이다.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사업」으로 3년간 이미 한국에서 동포 72명이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사할린주민들, <우리는 함께다> 민족 간 축제에 초대

7월 27일(토) 13시 마카로브에서 제6회 <우리는 함께다> 민족 간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러시아 민족과 사할린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전통, 풍습 등을 알려왔다. 이번 행사 프로그램에는 제주두루나눔 공연, 씨름대회, 러시아 및 한민족 전통 민속놀이, 사할린주 예술단들의 공연, 기념품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교실, 공예품 전시회 등이 있다. 해마다 이 행사에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후원하고 있고 이 축제에 여러 공연팀을 보낼 예정이다.

한 달 후 히라노 일본 총영사 임기 만료

지난 23일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관 히라노 류이찌 총영사의 임기가 1개월 후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 달간 신변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현재 신임 총영사 이름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히라노 외교관은 약 3년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총영사 임무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많은 문화행사를 추진했고 사할린 한인 행사에도 참석했다.

박승의, 사할린 한인역사에 관한 책 출간

오는 8월 2일(금) 18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박승의 전 사할린국립대 교수가 펴낸 <사할린한인들. 정체성을 찾아>모노그래프책 출간기념회가 열린다. 러시아어로 된 이 연구 논문은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가 발행했다. 저자는 사할린 한인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이 행사에 초대한다.

사할린동포,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 촉구 서명에 참여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 사정산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적인 조치와 강제동원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한 항의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7월 24일현재 4천여 명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해졌다. 이 서명은 8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

할린 동포들도 이 서명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서명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한다. 첫째는 온라인으로, 둘째는 직접 사인 명단을 작성한다. 작성 명단은 8월 초에 사할린을 방문할 한국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에 대한 내용은 본지 7면에 게재.

사할린과 쿠릴, 상업기관 약 3300개

7월의 4번째 일요일은 '상업인의 날'로서 2013년부터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기념하고 있다.

이날을 즈음하여 러시아 통계청 사할린 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3300개의 상업기관이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도매업이 44%, 소매업은 46%, 차량과 운송수단 판매가 10%이다. 개인 상업자는 7000 명이 등록되었고 이 중 75%가 소상공인, 12% 도매상인이다.

상업 방면에서는 4만7000여 명(주내 경제인의 16.5%)이 종사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월평균 임금은 4만200루블리이다(주 평균 임금 지표의 51.8%에 해당). 2018년 도매무역의 주요 부문은 소상공업 대상 품목이 84.5%, 그중 60.7%가 개인 상업이 차지한다.

도매물품 교역의 소규모 거래 부문은 35.8%였다. 2018년 소매무역 매출액은 1485억 루블리, 도매무역 매출액은 1279억 루블리이다. 소매무역 중 식품이 50.7%, 비식품이 49.3%이다.

지표상 일 년간 사할린주 주민 1명당에게 평균 30만3000루블리가 판매되었고 극동지역은 212000 루블리, 러시아 각 지역 215000 루블리라고 사할린주 통계청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 시장들, 한 달에 한 번 시민들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

지난 23일(화) 사할린주 정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새로운 업무 형식 도입에 대해 알렸다. 주민과 지방 공무원과의 정기적 간담회가 체계적인 토대 위에 문제 해결을 도울 거라는 전망이다. 간담회는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매달 진행하되 1월과 7월은 예외로 한다.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은 상하반기, 연간 시행한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번에 주내 전

지역에서 상반기(1월-6월) 보고가 이뤄졌다. 순차적으로 간담회는 톨몹스코예에서 7월 26일, 쿠릴스크에서 7월 30일, 스타미르니흐에서 8월 17일로 진행된다.

간담회의 목적은 주민들의 문제해결로서 내용은 주택 노후 및 수리의 해결 정도, 주택 건설, 도로, 사회적 분야 대상, 기술적 제반시설, 도로변 수리에 대해 알 수 있다. 보고의 요점은 지방, 구역 지도자들이 출장 방문 후 제시된 과제 시행이다.

(주정부 홍보자료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7월 27-28일 방송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아 서울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내 핏속엔 우리말이 흐르고 있다."이며,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1, 2부로 나누어 방송되며 1부 소재목은 "나의신문, 나의 조국", 2부 소재목은 "회귀본능"으로 구성되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란다고 방송국 측에서 전했다.

방송채널 & 방송시간
(한국시간 GMT+09:00)

KBS 1라디오 FM.97.3

27(토) 저녁 8:16-56 1부

28(일) 저녁 8:16-56 2부

KBS 라디오 주파수

FM.97.3 KBS 제1라디오

를 통해 듣거나 혹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

http://radio.kbs.co.kr/

kong.html에서

KBS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콩'을 다

운로드 받으면 스마트폰

으로 편하게 다큐멘터리를

청취할 수 있다.

(본사 기자)

조선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서적 판매에 종사

우글레고르스크 한글학교 주길자 강사



한때 사할린 지방에는 한국 어 교육이 잘 되어 있었다.

1950-60년대에 사할린사범 전문학교 조선학과를 졸업한 교사들이 1990년대 당시에 사할린 여러 곳에서 펼쳐진 조선어학습소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었다. 현재는 이분들이 연로하셔서 그만두거나, 영주귀국하셨거나 해서 지방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현재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회장 강복숙)가 운영하는 한글학교 강사 주길자 씨다. 작년 10월에 사할린국립대에서 열린 한국어 교사 및 강사 연수에서 낯선 분이 몇 분 계셨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주길자 강사였다. 꼭한 번 취재하고 싶었다. 일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하신 주 선생님을 만나 인생이야기를 나누었다.

1942년생인 주길자 씨는 1960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사범전학교 조선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4년간 조선학교에서 활동했다. 1년은 우글레고르스크구역 크라스노폴리에 마을 조선학교에서, 3년은 우글레고르스크조선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근무했던 일이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가르침도 재미있었고 적성에도 맞았던 것 같다. 수업시간에 연기력을 발휘해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리 길지 않은 경

험이었으나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교직을 나와 20-30년이 지나서 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한 번 동창회 모임을 갖고 이들의 생애 첫 학교 선생을 초대했다고 했다. 그중 한 분은 자신이 주 선생님을 보고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전공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순간 주 선생은 정말 마음이 뿌듯했다고 한다.

1964년 8월. 갑자기 조선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 선생은 많이 황당했다고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일을 그만두게 되니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퇴직통보를 받은 날에는 오랫동안 시내를 돌며 너무 떨려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했다.

새 삶을 시작해야 했다. 지인을 통해 그해 가을부터 서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판매원 보조로 시작하여 책을 판매하는 데에 생을 바치게 되었다. 일하면서 서적판매와 관련 교육은 노위시비르스크 도서유통판매전문학교 하바롭스크 분교에서 배웠다고 했다. 소련시절에 우글레고르스크구역 서적판매기관 9개의 서점이 있었다고 한다. 보쉬냐코워, 레소로그르스크, 켈놉스크, 샤흐초르스크 등. 그리고 미리 출판물을 주문한 기관과 업

체들이 많았는데 특히 전문 잡지와 책을 많이 요구했다고 한다. 그때 주길자 씨는 상품학 전문가로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책과 관련된 일이 전 직업과 연관이 있었고 소비자들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장기간 일하면서 단골손님도 생겼고 책을 찾는 이들의 취향도 알아채고 소개할 수도 있었다.

판매원 보조로 시작한 주길자 선생은 판매원, 상급 판매원, 상품전문가, 서점 사장까지 승진했다. 90년대에 우글레고르스크의 유일한 <서적>서점은 국가 상점에서 벗어나 개인서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당시 서점 직원 4명이 뜻을 모아 직접 매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영업으로 바꾸면서 서류상 주길자 씨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조선학교를 그만둔 후 주길자 씨는 55년간 서적판매에 종사했다. 이에 대해 주길자 선생은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성실히 도서 판매를 해오고 있다. 다만 작년 부터는 한글학교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 7월부터 근무시간을 2배로 줄이자고 했는데 서점 사정이 안 되어 전처럼 근무를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내년 1월에는 그만 둘 생각이라고 했다. 그땐 한국어 수업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칠 수 있

을 거라 기대한다고 한다.

주길자 선생은 현재 학생 10-17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 중 거의 절반은 7,8,9 학년생들이고 6-8명은 성인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학습의 이해 속도도 다르고, 원하는 수업방식도 좀 다르다. 선생으로서 학생의 수준을 일일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1주일에 수업시간이 두 번 있는데 주 선생은 수업 준비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주길자 선생은 지방한인회가 운영하는 우글레고르스크 조선어학습소에서 1989년-1992년까지 근무했다. 한국과 문이 열린 그 당시 모국어 교육에 동포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

"제가 90년대 당시 수업계획안, 그리고 60년대에 조선학교에서 일할 때 적혀있는 수업계획안도 가끔 꺼내서 봐요. 어떤 것은 지금도 수업시간에 이용해도 괜찮은데 실은 요즘 교수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 인터넷도 잘 보고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받은 교재와 직접 모스크바에서 주문한 한국어교재를 들춰보고 준비하는 거죠." 라고 주길자 선생이 설명했다.

그는 가끔 이르쿠츠크에 살고 있는 딸의 도움도 받는다고 한다. 딸은 이르쿠츠크외국어대학 영어를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어 과정을 익혔다고 했다.

"지금은 제 딸이 저의 교수방법론가나 다른 없습시다."라고 웃으면서 주길자 선생이 말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말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언어 배우기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라며 저를 가르쳐줍니다."라고 주 선생이 이야기를 이었다.

주길자 씨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러시아어만 쓰기 때문에 수강생들을 가르쳐줄 때 먼저 러시아어가 튀어나가는게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말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라며 그는 걱정한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 하는 스타일이다.

주길자 선생 슬하엔 딸과 아들이 있다. 아들은 블라디보스토크기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거주하고 있고 말손자가 벌써 30세다. 남편은 49세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혼자 살기엔 좀 외롭지만 좋아하는 일,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주길자 선생님은 새로운 제자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기회를 잡고 연로하다는 편견을 떨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 선수들이 '국제 체스의 날' 맞아 번개 토너먼트 개최

'세계 체스의 날' 세계 스포츠 명절을 맞아 사할린 주민들이 실내 번개 토너먼트 경기를 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조성된 경기들에 23명이 참가했다. 홈스크와 포로나이스크, 코르사코프에서온 경기자들은 주 중심의 주민들과 경쟁을 치렀다. 번개 토너먼트는 스위스 방식에 따라 13 경기로 진행된 가운데 한 경기에 3분, 2초 안에 한 번의 말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적합한 대응을 하려고 주의를 집중해야 했다. 최우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석 콘스탄틴 선수가 따냈다. 전형적인 체스선수인 그는 13경기에서 11승, 2 무승부로 12점을 획득했다. 그의 동향인인 이고르 체른초브와 아클백 카디로브만이 이 노련한 선수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다.

포로나이스크의 알렉산드르 호라포브 선수는 경기에서 11점을 얻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아클백 카디로브 선수는 2위와 반점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홈스크의 안드레이 페트렌코와 세르게이 가브루세브는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대회 결과에 따라 상위 10위를 기록한 선수 중 또 다른 유즈노 사할린스크 출신의 선수는 10위의 아르쎀 후스놀가틴 선수가 있다.

사할린 스포츠부 홍보실에 따르면 청년들 중에서는 아르쎀 선수가 가장 우수했고 같은 범주에서 보리스 신이 2위, 티그란 몸세샨이 3위를 했다고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или блиц-турниро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шахмат

Мировой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шахмат — островитяне отметили камерным блиц-турниром.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которые состояли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3 игрока. Конкуренцию жителям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состави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Холмска, Поронайска и Корсакова.

Блиц-турнир провели в 13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контрольные три минуты — на партию и две секунды — на каждый ход. Для уверенной победы участникам нужно было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внимание, чтобы не ошибиться, пытаясь уложиться в заданное время. Лучшее это удалось жител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нстантину Секу. Титулованный шахматист за 13 туров набрал 12 очков — в его активе 11 побед и две партии вничью. Не проиграть опытному спортсмену смогли только его земляки Игорь Чернцов и Акылбек Кадыров.

Серебро турнира забрал гость из Поронайска Александр Храпов. В партиях с противниками он заработал 11 очков.

Полбалла до второго места не хватило Акылбеку Кадырову, который стал третьим.

Жители Холмска Андрей Петренко и Сергей Габрусев заняли 4-е и 5-е места рейтинга.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по итогам турнира замкнул еще один южносахалинец — Артем Хуснулгатин.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области, он же стал лучшим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Второе место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взял Борис Син, а третье — Тигран Мовсесян.

익스트림 자전거 애호가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공개 훈련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익스트림 산악자전거 경주자들이 도전적인 산악자전거 난코스를 개발하고 스릴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주 훈련을 교습한다.

이러한 선수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경주 코스인 급경사, 급회전, 험한 굴곡 지형은 이미 익숙한 코스로서 훈련을 끝냈다.

'고르니 워즈두호'에서 현재 산악자전거 경주를 위한 노선들이 건설 중에 있다. 이곳에서 숙련된 선수들은 자체 훈련을 하고 초보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과 조종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스키장에서 여름 스포츠 종목이 개발된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익스트림 산악자전거 경주와 최근에 생긴 다운힐(산 경사지 승강과 하강)은 고르니보즈두

호 지역의 혁신 코스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볼셰비크산 정상에서 아래 광장까지 산악자전거의 대규모 급하강은 가장 대중적인 유형 중 하나다. "현재 주 정부의 지원으로 다운힐을 위한 새로운 코스를 건설 중에 있다. 모든 국제적 안전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훈련이다. 매주 일요일 이곳 '고르니 워즈두호'에서 우리와 규합할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사할린 익스트림 산악자전거 스포츠> 지역단체의 이고리 발라 회장이 말했다.

현재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 클럽 회원은 약 50명 정도이며 회원 중 최연소자는 8세이고, 최고령자는 50세 정도다.

Любители экстрима на велосипеде зовут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на открытые тренировки

Экстрим-райде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сваивают сложные трассы для маунтинбайка и предлагают еженедельные тренировки всем любителям острых ощущений. Для этих спортсменов езда на велосипеде давно вышла за пределы обычных покатушек: адреналиновые спуски и подъемы, резкие развороты и сложный рельеф стали для них привычными трекками.

Трассы для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велоспорта сейчас строят на базе «Горный воздух». Там опытные спортсмены тренируются сами и учат начинающих райдеров. Главное для каждого любителя маунтинбайка — оттачивание навыков управления и маневрирования.

На базе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летние виды спорта развивают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Экстремальный маунтинбайк, а с недавних пор и даунхилл — нововвед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Но они уже приобрели свою популярность у горожан — одним из самых массовых стал массовый скоростной велоспуск с вершины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до нижней площадки.

— Сейчас для даунхилл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мы строим новые трассы. Оборудуем их по все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безопасности.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3위 수상자 박정순 저자 소개

저는 1951년에 코르사코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레닌그라드 화학제약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6년간 하바롭스크 화학제약공장에서 마스터, 기술전문가로 일했습니다. 1982년부터 위생역학센터 위생화학실험실의사로, 실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할린에서 조선학교가 폐교된 후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 지 이미 반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닌그라드에서 공부할 때 가끔 부모님들에게 우리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한글을 안 쓰다가 이번에 새고려신문 주최 콩쿠르에 참가하면서 우리말로 글을 써서 오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보시면 부모의 이야기, 같은 삶을 살아온 이야기 때문에 공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글이 뜻밖에 수상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이런 콩쿠르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새고려신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의 삶

박정순

엄마로서의 삶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게 된 엄마는 이별로 외로워하며 텅 비워져가는 마음을 물건 하나 하나 고르시며 채우려고 하였던 것 같았다.'

나의 엄마의 엄마로서의 삶은 열여덟살에 시집을 가서 아버지와 러시아 연방 사할린으로 와 살게 된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때는 일제강점기였다. 한국을 떠나 수많은 한인들이 머물러 살게 된 곳은 일본인들이 "카라후토" 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던 러시아 연방 사할린이다.

엄마는 1928년생이시고 현재 한국 연세로 92세이시다. 엄마는 아들 둘에 딸 넷을 슬하에 두셨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벌어들인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큰 땅, 대륙에서 공부하는 세 명의 자식한테 보내면 남는 건 없다. 큰 아들이 장가가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식구가 또 늘어났다. 아버지가 벌어들인 돈이 부족하여 어머니는 텃밭에 채소를 심어 시장으로 팔러 다니셨다. 그렇게 하여 생활에 필요한 걸 살 수 있었고 겨울에 먹고 살 돈도 생겼다. 때로는 가족들 기르며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으셨다. 겨울에는 텃밭에서 나오는 것이 없으니 한두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아 취직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시절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에 와서 해방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 땅에서 머물러야 했던 한인들 중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 밭농사에 손이 많이 간다는 건 매일 매일 그들이 체험한거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엄마의 어린 시절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가 엄마의 고향이다. 나이 세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을 찾으셔야 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찾기 쉽지 않았다. 할머니는 고민하시다가 떡 장사를 시작하셨다.

할머니는 쌀을 사서 떡을 만들기 시작하셨다. 직접 만든 떡을 끓여지고 팔아서 또, 쌀을 사고 또 떡을 만드셨다. 떡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떡을 식량으로 꾸어주기도 하셨다... 어린 우리 엄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할머니의 삶의 증인이 되셨다.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질문하였다.

"엄마, 할머니가 팔려고 만든 떡은 잡수어보셨어요? 혹시 안 끓였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애들 밥은 꼭 먹이고, 안 끓기고, 옷 사 입히며 살라고 떡 장사를 했는데... 그리고 먹으라고 만든 떡을 왜 안 먹었겠어? 먹었어. 언제나 맛있었지!"

엄마는 당연한 말이라며 회상하듯 대답하셨다.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든 떡을 먹으면서 자란 우리 엄마는 지금도 떡을 아주

좋아하신다. 엄마가 가끔 우리 6남매에게 직접 만들어 주시던 떡을 먹을 때면 잔치나 명절의 기분이 났고 그 시절 우리에게 행복감을 만들어 주셨다.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찜고 빵아 만드는 우리의 전통 떡은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귀한 사람에게 선물할 만큼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소녀시대

"정숙아, 우리 서울 가자! 서울 공장에서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언니들을 봤는데, 우리들도 일할 수 있나네." 옆집 한살 위인 엄마의 언니뻘 되는 친구가 소식을 가져왔다. 그때 엄마 나이 13 세이셨다. 친구와 함께 충청남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니, 새로운 생활의 느낌이 드셨다고 한다. 그런데 보따리를 싸고 서울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가야 할 친구가 오지 않았다. 그 친구에겐 아버지가 있었는데.

"네가 왜 서울로 가야 되냐?... "며 안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머지 않아 그 이웃집 언니는 시집을 갔다고 했다. 지금도 그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노동에 시달렸던 때를 생각하면 엄마는 어릴 때 아버지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던 걸 느낀다고 하셨다.

"영등포 주식회사, 고약고- 하찌 주-니방." 작업복에 새겨진 엄마의 명찰. 직원들의 작업복에 새겨진 명찰은 이름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지금 연세가 92세이셔도, 자다 말고 깨어서도 작업복 명찰은 기억하신다. 회사에서는 13살의 작은 아이를 보자, "이런 애기가 뭘 하려고 왔느냐?" 하며 공장장이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과 문제로 공장에 남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작은 애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을시켰다고 했다.

살피보니, 일을 알뜰히 잘 하기에 다움에는 배 짜는 일을 가르쳐주었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나 엄마는 혼자서 옷감 짜는 일을 시작하였다. 다음에는 일을 잘 하기에 배 짜는 기기 두 틀, 다음에 세 틀, 최고 네 틀을 맡아서 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어려서 힘이 들어도 열정과 근면으로 일하기에 언제나 주위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셨다고 했다.

"엄마, 공장에서 일하시는 동안 어려웠지요? 기계 네 대나 가지고 일하기 쉽지 않았겠는데?" 딸의 질문에 엄마는 대답하셨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12 시간씩 교대로 일하며 기숙사에서 자고, 만들어 주는 밥 먹고, 목욕탕도 있어서 일할 시간이 끝나면 씻을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어. 3년 계약대로 공장에서 일했었지. 월급은 한 달에 고시까이 조금 받고, 남은 것은 저금통에 나뒀다가 집으로 갈 때 다 받았어. 안 어려웠어, 놀다 왔지. 그런데, 그때 전쟁 중이었지. 공장에서 일할 때 비행기 소리가 수십 번 들리곤 했었어." (다음호에 계속)

김남중 동화작가와 함께한 문학의 밤



7월22일, 오후 6시, 가가린호텔 9층 컨벤션홀에서는 새고려 신문사가 주최하고 사할린 한국 교육원과 가가린 호텔이 후원하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다. 해마다 개최되는 이 행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들은 한국에서 온 유명 작가들을 만나고 이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문학 속에 비취진 한국과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다.

이번 <문학의 밤>에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해외정착거점 예술가 파견사업으로 사할린을 찾은 김남중 동화작가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모임에는 사할린 동포들과 장태호 시인, 양 세르게이 시인, 허 로만 시인을 비롯한 문학계, 예술계, 사회계 인사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학교 교육과 현대 인터넷 정보와 영상물의 홍수 속에 떠다니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종이책으로 읽는 동화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어떤 힘을 주고, 어떤 상상력을 가지게 할지 궁금한 가운데

"방학을 맞아 사할린을 찾았다."며 "아름답고, 조용하고, 동포들의 인정이 넘치는 이곳이 한국의 어느 지방에 온 것 같다."고 꿀성대(맑고 또렷한 목소리)를 가진 김남중 작가가 첫 인사를 했다. 1972년 전북 익산에서 출생해 원광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한 김 작가는 21년간 약 50여 권의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출간했다.

군대를 다녀온 뒤 창작을 시작해 1998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제 5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제 8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 창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동화집 <자존심>으로 '올해의 예술상'을, 2011년에는 <바람처럼 달렸다>로 제 1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남중 작가는 동화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자연과 인간의 갈등, 역사를 만들어가는 민중들의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했다. 요즘은 좁은 한반도의 지경을 넘어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대륙과 대양으로 시야를 넓히는 모험과 도전에 대한 작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의 국토는 크지 않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은 커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 작가는 책 속의 정보뿐 아니라 살아있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글을 쓰고자 3년 전에는 한 달간 북극

을 여행했다고 했다. 지구 온난화로 멸종한 마지막 북극곰의 이야기를 담은 <살아 있었니>를 썼는데 지금 사할린에서도 북극곰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체험하고 그 느낌을 작품으로 담아내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걷기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프로젝터로 여러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작품들을 설명했다. 곰을 유난히 좋아하는 터라 곰을 소재로 한 작품이 더 있다며 <주먹곰(: 한국 비무장지대에 사는 작은 곰)>, <덤벼라 곰(: 지리산 반달곰과 소년)>을 소개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 초등 학교 학생들이 넓은 사할린의 자연에서 사는 불곰을 꼭 만나고 오라고 부탁했다며 불곰 털이라도 가져가고 싶다고 소원을 말했다.

역사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는 <첩자가 된 아이(: 고려 아이들의 삶을 통해 본 몽골의 침략과 삼별초의 항쟁)>, <새나라의 어린이(: 해방 후 친일 세력 청산 노력과 실패)>, <연이동 원정전(: 현재의 어린이들에게 광주민주항쟁이 갖는 의미)>, <기 찾길 옆 동네(: 광주민주항쟁을 겪는 보통 사람들)>, <나는 바람이다 1~11(: 17세기 조선에 13년간 억류되었던 네덜란드 선원 핸드릭 하멜과 함께 조선을 떠나 세계일주를 하는 13세 소년 해풍이의 이야기. 일본의 나가사키-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아프리카 희망봉-네덜란드-쿠바-멕시코-태평양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소년의 모험을 8년에 걸쳐 11권의 책으로 집필.)> 등이 있다.

평범한 가족과 아이들의 삶에 대한 작품으로는 <속 좁은 아빠(: 술고래 아빠와 가족의 암 투병기)>, <하늘을 날다(: 불우한 소년의 방황과 극복)>, <아파트 옆 작은 논(: 가족과 함께 벼농사를 지으며 농촌공동체를 체험)>, <미소의 여왕(: 가난을 버티며 살아가는 소녀)> 등이 있다.

자전거 여행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를 담은 작품으로 <불량한 자전거 여행1,2(: 부모의 이혼으로 집을 나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 여행을 하면서 깨달음과 희망을 찾는 소년의 이야기)>, <멋져부러 세발자전거(: 일등도 꼴등도 없는 행복한 자전거 대회를 통해 경쟁속에 놓치는 풍경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아름다움.)> 등등, 약 30편의 작품을 소개했다.

(8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хватила сахалинское судно с краболовам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хватила российское рыболовецкое судно с 17 моряками на борту. Об этом "Коммерсанту" сообщил замдиректор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рыболовной компании, владеющей кораблем, Сергей Седлер.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в ночь на 17 июля.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 судне "Сянхайлинь-8" находились 15 россиян и 2 южнокорейца — они направлялись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орта Сокчо в Японское море для добычи краб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хватила судно в 55 милях от границы страны. В момент задержания корабль шел без груза.

"В 4 часа утра 17 июля прямо на ходу на корабль высадились пограничники и отключили все средства связи. Мы даже не сразу поняли, что случилось, сначала думали, что они дрейфуют, но потом поняли, что их захватили", — объяснил Седлер.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ричиной ареста стало незаконное пересечение границы "зоны военного охранения", которую КНДР произвольно установила в 50 морских милях от берега.

Моряки были конвоированы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Вонсан, российский консул посетил их только во вторник, 23 июля.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россияне содержатся в закрытых каютах, где их регулярно обыскивают и допрашивают.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 объяснили, когда начнется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по их вопросу, пишет "Лента.ру". Судно приписано к Невельск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борту рыболовецкого судна "Сянхайлинь-8", приписанного к Невельску, находятся 15 россиян. Среди них — трое островитян — это жители Невельска, Корсакова и Холмска.

В ситуации сейчас разбирается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КНДР.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ипмиссии уже удалось встретиться с экипажем. Решаются вопросы по скорейшему возвращению моряков домо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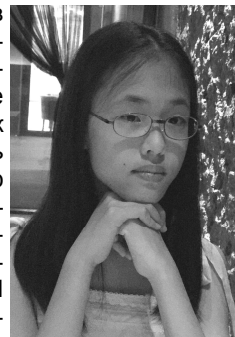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ит за развитием ситуаци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В случившемся сейчас разбираются компетентные орга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ажно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моряк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три ж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своих полномочий будем оказыв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Постараемся сделать все для скорейшего и благополуч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ситуации,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дкин.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бедитель в номинации «Начало» У Солли, 13 лет (г. Пусан)

Я родилась в Москве, но уже как 10 лет живу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в Корее. Учусь в американской школе в 7 классе, и моим первым языком является английский. Поэтому должна признаться, что оригинальный текст эссе был написан именно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вод мне помогла сделать мама. Но это, мне кажется, не важно. А важно то, что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над моим эссе я обратилась к истор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на примере судьбы моей бабушки. Я живу в Корее, и здесь меня многие спрашивают, как мои предки оказались в России. Теперь я точно знаю отв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И это знание своей этн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и истор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помогает мне найти себя в этом мире. Участие в эт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было моим дебютом. И я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что получила такую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жюр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овали люди намного старше меня. Я думаю, что это старт мое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ути, и в будущем я мечтаю стать писательницей. Благодарю свою бабушку и маму за вдохновение!



Девочка с тремя именами – жертва или «баловень судьбы»

У Солли

Жизнь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своего народа и своей страны.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ации могут стать огром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одной человеческой судьбы. А могут...

Моя бабушка роди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20 августа 1948 года, ровно через 10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понцы начали отправлять корейцев на работу на далекий остров. Ее родители были среди них.

В 1938 году мои прабабушка Тен Гым Су и прадедушка Квон Им Суль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на корабле на далекий Сахалин вместе с такими же молодыми корейцами. Мои прабабушка и прадедушка навсегда покидали Пусан, даже не догадываясь об этом. Сахалин в то время являлся колонией Японии, как и вся Корея. Сегодня эти земли принадлежат России. Но тогда Сахалин был местом, куда японцы вывозили корейцев на тяжелую работу в угольные шахты. В результате многие семьи были разлучены, это стало трагедией, но люди не теряли надежды, что когда-нибудь вернуться в родные края.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продолжалось вплоть до 1945 года, пока не законч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в которой СССР со своими союзниками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Советская Армия продвинулась далеко на Восток, освободив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их империалистов. Эти земли принадлежали Японии со времен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одов: царь Николай II вынужден был отдать японцам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богатые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так как Россия проиграла войну.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японцы уехали с этих земель, а корейцам сказали, что за ними придут корабли и они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Но этого не случилось. Корейцам пришлось слишком долго ждать сво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В это время вспыхнула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1-1953 год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разделен на две части: Южную Корею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Южной Корее помогла Америка, а союзник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ыступил СССР.

Во времен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между СССР и Южной Кореей не был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Это означало, что у корейцев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связаться с родными и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Когда мои прабабушка и прадедушка, ка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корейцы, поняли, что японцы их обманули (корабли никогда за ними не приплыли), он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остаться в России и начать жить по-новому, принимая новую культуру.

В это время и родилась моя бабушка. С рождения ей было дано два имени: корейское и японское. А сейчас ее многие называют русским именем — Лена. 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 рождении ей было дано корейское имя по родовой книге — Квон Хен Дя. Это было и остается ее самым важным именем. Она научилась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ски и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а свой родной

язык, который прочно связал ее с предыдущим поколением.

Как рассказывала моя мама, традиционно всем корейским детям, рожденным во времена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изма и долгое время после него давали японские имена: японцы не хотели, чтобы у корейцев были корейские имена, не хотели, чтобы дети знали историю своего народа и родной язык. Каждый корейский ребенок должен был иметь японское им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оя бабушка родилась в 1948 году, когда Сахалин был уже освобожден от японцев, ей все равно дали японское имя — Сатико.

Когда бабушка пошла в школу, у неё, как и у многих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того времени, появилось новое имя — Лена, потому что родное имя Квон Хен Дя звучало необычно в школе, где учатся в основном дети с русскими именами.

Моя бабушка закончила школу и поступила в университет. В это время мой дедушка тоже был студентом. Они были молоды, полны надежд и сил. Полюбив друг друга, они поженились. Вскоре родилась моя мама, которая ст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зже, в 1978 году, родилась моя *имо* (по-корейски тетя).

Бабушка с дедушкой прожили всю свою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тили детей, работали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зже добились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бизнесе. А еще у моей бабушки было много увлечений: ее красивые розы вокруг дома восхищали соседей, а теплый уютный дом с радостью принимал друз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еня всегда восхищала ее талант создавать красоту вокруг себя.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она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а свой родной язык: всегда ему обучалась и обучала других, и в душе очень надеялась, что когда-нибудь сможет поехать на родину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Наступил 1990 год.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установили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ногие, уже пожилые люди, ста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родину предков.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несправедливо, что им пришлось ждать целых 45 лет, но они все равно благодарны судьб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корням. Мои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тоже получили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о предпочли ост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ейчас моя бабушка,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ерипетии нелегкой судьбы на фоне глобаль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остается самой счастливой бабушкой: она вырастила двух прекрасных дочерей и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музой для своего мужа, моего дедушки. Она успешна в работе, продолжает помогать детям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обучая их род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так как она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Моя мечта». Она гордится тем, что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кой двух стран — Кореи и России, носителем двух культур и двух языков.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пережитые ее народом, не сломили девочку с тремя именами, а дали ей шанс прожить интересную и насыщенную жизнь.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резолюцию об отношениях с Японией

22 июля комитет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торговл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л резолюцию с требованием к Японии отменить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экспортные меры. Документ состоит из четырёх пунктов. Первое - это утверждение о том, что меры Японии не только наносят ущерб отношениям двух стран, но и нарушают мировой порядок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Далее составители документа изложили требование о немедленной отмене ме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озмездия. Озвучена также позиция о том, что стороны должны стремиться 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пора, 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должно прекратить беспочвенные обвинения в нарушениях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оследний пункт - это требование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принять активные мер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защиты отече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от действий Японии.

РК сократила экспорт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Японию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объё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Японию сократился на 5,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354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щий объём экспорта в данном сегменте вырос на 6,3%, составив 1 млрд 270 млн долларов. Снижение экспорта в Японию не связано с ужесточением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мер по контролю за импортом морепродукт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введены после признания ВТО оправдан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запрета на ввоз япон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 подчеркну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НДР привлекает туристов в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КНДР представила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нтенты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15 июля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й орган «Чосонэ онль» сообщил о том, что с третьей декады июля до конца ноября начина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туров в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четырёхдневный тур включает поход в горы, рыбалку, лечебные процедуры в горячих источниках. Судя по всему, Север в ситуации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пытается обеспечить каналы поступления валюты за счёт туризма. Ещё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ласти объявляли о различ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нтентах, привлекая туристов. В мае 2011 года СК объявила горы Кымгансан специаль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ой, привлекая иностранцев.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95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страну по визе или в рамках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и оставшихся в стране нелегальн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8 июл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ая отметка на 11,9%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Из них,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в РК въехали 99 тыс. человек, по краткосрочной визе - 63 тыс., п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 33 тыс. человек. На рост показателя повлияло введение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со странам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 целью привлечь туристов на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е. Между тем, на 18,6% до 69 тыс.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на учёбу.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популяризацией в мир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ъехавших в РК по рабочей визе, выросло на 4% до 126 тыс. человек. Из них 107 тыс. -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Въезд в страну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ырос на 5,6%, составив 55 тыс. человек.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Ханган Монттан»

19 июля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седьмой по счёту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Ханган Монттан»,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по 18 августа. Его проводит Сеульская мэрия. Ежегодно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щают более 10 млн человек. В его рамках в 11 парках вдоль реки Ханган организованы 77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 том числе водные игры, концерты, кинопоказы, ярмарки и другое. 57 из них бесплатные. 28 програм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впервые. Среди них создание плотов из отработанного пластика и бутылок, организация зон для пикников и другие. В рамках еженедельных показов фильмов под мостами по случаю 100-лети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подготовлен показ 20 фильмов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Кроме того, со 2 по 10 августа впервые пройдёт концерт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Hangang Summer Music Picnic.

(RKI)

Улыбка писателя

Учитель Сон, не переставая, смотрел на Чинсон. Его всегда веселое лицо выглядело грустным. «Может выбрать учителя Сон королем улыбки? Надо будет позже предложить ребятам». Чинсон посмотрела на учителя и улыбнулась. Время похвал подходило к концу...

Ким Нам Чжун. «Королева улыбки»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ась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исателем Ким Нам Чжуном.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писатель известен как автор почти пятидесяти произведений. Его рассказы, повести и романы читаются детьми и подросткам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купаются продюсерами для создания сценариев фильмов, а критики оценивают автора по таким наградам, как «Премия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а» и «Гран-при за лучшую книгу» и др.

Ким Нам Чжун - человек необычный. Все то, что он описывает в сво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испытывается и проверяется им самим. Писатель занимал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ходил на паруснике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был участником сафари в Африке, побывал на Северном полюсе в составе научной экспедиции и, конечно, много путешествовал. В постоянных покорениях мира находятся и литературные герои Ким Нам Чжуна: они пересекают сушу и морские просторы. По словам писателя, в будущем он намерен отпустить своих персонажей (а это не только молодые люди, но и их родные, друзья и наставники) в странствия по небу. Имен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нять, как можно знакомиться с миром, двигаясь по воздушным путям, писатель стал участником программ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илотов-любителей. Но в предшествующей реальному полету обстановке стажер... упал в обморок. Об этом писатель рассказывает смеясь, нисколько не скрывая конфуза, запечатленного случайно одним из канал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Умение оборачивать в смех сложные моменты жизни отличает многих героев книг Ким Нам Чжуна. О том, как легко и естественно нужно жить даже в самые сложные моменты взросления ребенка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в книгах: «Я - ветер», «Сквер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велосипеде», «Жизнь у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езадачливый папа», «Ну, медведь, нападай», «Опасная чайка», «Ты жив?» и других.

В разговор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им Нам Чжун поделился тем, что сегодн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Южной Кореи есть тенденция знакомить детей с книгой

не только через традиционное чтение, но и с помощью воплощения каких-то действий литературных героев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Если герои могут кататься на велосипеде, то этому же должны научиться и читатели. «Дети могут вместе с учителем читать книгу и проходить по ней обучение. Познание состоит в умении читать и действовать», - убежден писатель. Еще одна проблема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на взгляд Ким Нам Чжун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в интернет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непроверенные данные. Настоящий писатель должен на себе убедиться в том, как могут себя вести в разных ситуациях его герои.

На вопрос, как встрет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исателя, Ким Нам Чжун, отвечает, что посетив разные город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он поражен чистото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спокойным ритмом жизни и комфор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Мечта писателя, уже побывавшего в Заполярье и увидавшего с палубы судна белого медведя, состоит в встрече с бурым хозяин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леса. «Во время такой желанной встречи, а она может быть издалека, - говорит с улыбкой Ким Нам Чжун, - я буду помнить об опаснос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исателя для российских читателей практически неизвестны.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 переводе Ксении Нетребиной издан сборник из трех рассказов с общим названием «Королева улыбки». Сборник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ыл признан лучшей книгой 2010 г. Возможно, что в будущем кто-то из героев Ким Нам Чжуна окажется в условиях Сахалина, и в этом случае на помощь могут прийти островные знат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асть которых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на встрече с писателем.

А с уже переведенным сборником «Королева улыбки» Ким Нам Чжуна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куда писатель передал в подарок несколько экземпляров своей, располагающей к добрым эмоциям, книги.

Е.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Российский студент осужден в Корее за подделку банкнот

Студент из России из числ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говорен в Южной Корее к условному сроку за изготовление и сбыт поддельных денег. На преступление он пошел из-за финансовых проблем.

Суд Сеула по Цент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признал 24-летнего студента из России виновным в изготовлении и сбыте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приговорив его к полутора годам тюрьмы с отсрочкой исполнения приговора на три года.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в материалах дела, преступник является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ем, но имеет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и, по информации СМИ, учился "в одном из известных вузов Сеула". Н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его толкнули финансов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он стал испытывать, находясь на учебе в Корее.

Студент, используя цветной принтер, сделал коп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анкнот достоинством 50 тысяч вон каждая (около 45 долларов). Чтобы придать достоверности банкнотам он раскрасил карандашом места, где находится голограмма, защищающая от подделки. Россиянин пытался изготови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9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но не у всех на принтере совпали лицевая и оборотная сто-

роны. В итоге было сделано 12 банкнот. За двадцать дней семь банкнот по одной ему уд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покупке в местных магазинах воды, продуктов, сигарет и прочих товаров, после чего полиция вышла на его след и арестовала.

В решении суда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реступни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обирался сдела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 39 штук по 50 тысяч вон (хотя получилось только 12), что является серьезным нарушением, "а потому требует строгого наказан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уд в качестве смягчающ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учел те факты, что у студента в РФ не было случаев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на преступление его толкнула нужда, он раскаялся в содеянном, уровень преступления не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а из семи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его действий, шестеро заявили, что прощают студента и не желают наказания. В итог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граничиться условным тюремным сроком. Скорее всего, студен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сто будет депортирован в Россию, с запретом на въезд в Корею в теч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и объе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ыпуска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и добычи нефт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 январь-июнь 2019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541,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сравнении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 рост на 2,8 процента.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ыросло на 3 процента до 523,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За пол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вели 115,4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Это на 18,6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результатов аналогичного период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е объем подрядных работ увеличился почти на 7 процентов и составил 16,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Рост показателей наблюдается по основным отраслям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Добыча нефти составила 1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 рост на 7,8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ахалинские уго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добыли 5,8 миллиона тонн угля – рост на 16,4 процента.

За полгода в области увеличились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бензина, рыбных консервов, мясных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сливочного масла,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ставил 2,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на 10,6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в январе-июне 2018 год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на 24 процента) и мяса (на 10,4 процента). Отмечен рост поголовья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показателей среднего надоя молока на одну корову и яйценоскости кур-несушек.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увеличился оборот оптовой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а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будут выпускать новые готовые блюда из местной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Рецепты разработали в селе Красногорск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Зде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 учрежденной им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щен современный цех, где производят готовую еду без консервантов. Вскор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чнет выпуск новых блюд – куриного филе с тремя различными гарнирами.

Инициатор проекта – АО «Красногорская заимка» – сегодня имеет мощный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Здесь круглый год в больших количествах выращивают овощи. Н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еды запустили летом 2017 года. В просторном помещении установлены холодильники, автоклавы,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дефростации, лаборатория,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отд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линий. Сегодня в ассортименте цеха 22 вида продукции: различные супы, щи, борщ, рассольник, жаркое из говядины, рагу из свинины, творожная запеканка,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каш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Многие приверженцы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сейчас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употребления говядины и свинины, – рассказала технолог предприятия Наталья Горбунова. – Поэтому мы решили включить в ассортимент блюда из курицы. Сейчас проводим испытания, отработаем технологию.

Процесс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ностью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 Сначала отдельные ингредиенты блюда проходят подготовку в горячих цехах. Здесь, например, пассеруют лук, обжаривают котлеты. Далее на линии упаковки ингредиенты раскладываю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цептурой в подготовленную порционную тару, которую запаивают пленкой. После этого наступает завершающая стади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стерилизации. В автоклавы загружают по три корзины, в каждой – 500 порций. После полуторачасовой обработки блюдо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о.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такой продукции – он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не требует особых условий хранения. Холодильник нужен только молочным кашам и творожной запеканке. Остальные блюда можно хранить в течение полутора часов при комнатной температуре.

– Мы используем исключительно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е продукты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а также закупленные на други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 рассказала Валентина Баранска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 Весь процесс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ходится под постоянным контролем. Поэтому и качество высокое. Технология стерилизации позволяет обойтись бе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сервантов.

Перед употреблением готовое блюдо необходимо разогреть в микроволновой печи. Если ее нет под рукой, достаточно опустить порцию в упаковке в горячую воду.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нужно достать, вскрыть и можно приступать к еде. По вкусу и внешнему виду блюда ничем не отличаются от свежеприготовленных.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когда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лноценное питание в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Пригодится такая еда рыбакам, охотникам и туристам, а также тем, кому некогда заниматься готовкой.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руководство предприятия планирует расширить сбы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ект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на колесах»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пециалис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поликлиник провели выезд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в одном из микрорайонов города и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Хомутово.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осмотр, не отходя далеко от дома.

19 июля в Хомутово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стартовал в девять утра.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у местной амбулатории уже собрались желающие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После анкет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цы отправлялись в передвижной рентген-кабинет на флюорографию и маммографию. Результаты выдавались сразу после обследования.

В самой амбулатории на дверях кабинетов разместили указатели, чтобы было удобнее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где можно пройти ЭКГ и антропометрию, сдать анализы,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терапевтом.

Если у врачей возникали подозрения на серьезные недуги, пациента направляли на более дета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К слову, с начала года благодар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специалис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4 выявили несколько случаев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Обнаружение таких болезней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вает шансы на успешное лечение.

– В этом году увеличился поток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медосмотр. Стала чаще приходиться молодые люди. Во многом это заслуга единого дн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Врачи ведут прием и в субботу, и в среду вечером,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поликлиники №4 Галина Марунчак.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юдмила Добрикова проверила свое здоровье в мобильном медпункте,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исты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развернули в микрорайоне города.

– Я в феврале была на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в своей поликлинике. А сейчас, раз есть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ешила пройти 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осмотр. Почему бы и нет? Быстро, удобно и близко к дому,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на колесах» стартовал в июне. Осмотры в передвижных комплексах прошли уже около 450 человек. Помим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 проекту уже подключились Корсаков, Анива, Томари и Ноглики.

Также с июня в сахалинских поликлиниках ввели единый ден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ройти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можно по средам с 17 до 20 часов и в субботу – с 9 до 15.

Три российских ленты борются за Гран-пр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я света»

С 23 по 30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евятый раз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орум. Уже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названия первых конкурсных фильмов и членов жюри.

На открытии зрители увидят «ООО «Семейный роман» – новую картину классика немец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неоднократного лауреата Каннского, Венецианского и Бер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ей, номинанта на премию «Оскар» Вернера Херцога. Показ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российской премьерой этого фильма и начнет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Края света».

– Когда мы только начинали делать фестиваль на Сахалине, в основу нашей концепции мы положили простую идею о том, что Сахалин – это восточные ворота России. Все эти годы мы уделя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понскому, иранскому, тайскому кино, расширял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ших зрителей о географии кино. Сегодня для фестиваля настает новый этап. Нужен глобальный контекст. И фильм немца Вернера Херцога, нашедшего своих героев в Японии, – идеальный пример глобальн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со своим неповторимым авторским лицом, – отметил программный директор кинофестиваля Алексей Медведев.

Из девяти конкурсных фильмов, которые борются за Гран-при «Края света», три созданы в России. «Большая поэзия» Александра Лунгина уже получила приз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и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Александр Кузнецов) на «Кинотавре». Фильм «Дылда» Кантемира Балагова отмечен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в канском конкурсе «Особый взгляд», а также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имени Андрея Тарковского «Зеркало». А мировая премьера киноленты «Мальчик русский» дебютанта Александра Золотухина состоялась в программе «Форум» Бер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Сегодня уже известны также имена трех из пяти членов жюр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орума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македонский режиссер Теона Стругар Митевска, актер Александр Робак и композитор Владимир Мартынов.

На девятом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Край света»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ждут

лучшие фильмы со всего мира. Зрители увидят побившиеся им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ьных хитов «Самое главное» и «Как научиться смотреть кино», анимацию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Состоя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показы со звездными гостями, программы фильмов членов жюри 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кино. На фестивале покажут фильмы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и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остан» позволит посмотреть на карту мира под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м углом. Такж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оруме пройдет традиционная «Ночь в театре», концерты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дили волонтеров за помощь людям при переходе на цифровое телевидени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от имени област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благодарил юных добровольцев и вручил им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 Отключению аналогового вещания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большая техническая работа. Но также за этим событием стояло огромное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али жителям подключать приставки, настраивать каналы, устанавливать спутниковые антенны.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 – непростое дело. Здесь требуется не только знание техники, но и большое терпение, умение слушать и слышать.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таки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людей, как в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мотреть любимые программы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 обратился к ребятам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Более 500 волонтеров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с переходом на цифровое вещание. Добровольцы прошли специ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в Российской телевизионной и радиовещательной сети (РТРС).

– Мы ходили по адресам и настраивали телевизоры, подключали цифровые приставки и антенны. Быть асом техники не надо – в этом каждый житель нашего 21-го века, так или иначе, разбирается, – рассказала студент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волонтер Дана Кораблева.

– Я состою в нескольких волонтерских объединениях. Сказали, что не хватает ребят для такой работы, и я сразу согласилась. В свободное от школьных занятий время я занималась цифровым телевидением. Помощи просили не только пожилые, но и молодые люди, – добавила Виктория Уза.

Напомним, с 15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ешла от аналогового телевизионного вещания к цифровому. Но уже 24 декабря 2018-г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мотреть 20 каналов в отличном качестве. А владельцам старых моделей телевизоров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иобрести, подключить и настро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приставки.

Эксперты определили лучшие и худши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ло половины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УК) региона не допускает грубых нарушений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не имеет долгов перед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Два года назад УК, получивших оценку «хорошо», было в 2 раза меньше. К этим выводам пришли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региона.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набрали «Ресурс-плюс»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Бирюза», «Сакура-плюс», МУП «Тепло», «Корсаков-плюс», «УК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Александрит»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УДТ», «Единство», «Доверие» (Оха), «УК «Бумажник» (Углегорск), «Ника плюс», МУП «Тепловые сети» (Холмск), «УК «Роз-хаус» и «УК-Прогрес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изкую оценку получили ООО «Районное жилищное управление» (Долинск), «УК «Корсаковское ЖКХ» и МУП «Строитель» (Макаров). Эти организации имеют протоколы с нарушениями лицензио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жалоб, предписан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есть и неисполненные. Предельно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рейтинга не был присвоен ни одной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области.

Рейтинг УК региона составляется с 2017 года. Цель – выявить добросовестные и менее актив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Результаты позволяют гражданам осознанно подходить к выбору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а сам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справлять недостатки в работ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ейтинге участвуют более 130 УК.

Дать оценку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и повлиять на их работу можно также через систему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помним, сервис был запущен 29 мая. Теперь любой житель области может в онлайн-режиме сообщить властям о проблеме, с которой столкнулся в своем доме, во дворе или на улице. На специальном портале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обращения по 87 различным тематикам (вопро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시십시오.

이 서명은 올해 8월 15일 국제평화행진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에 대한 소위 '경제보복'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합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 피해자들은 물론 자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거짓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고 피해자들이 당한 강제동원 ·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결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마침내 이 판결을 촛불의 힘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이뤄낸 정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를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라고 부르는 것 역시 과거 부정의 산물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적반하장적인 이러한 태도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시킵니다.

다른 민족을 억압한 식민지배가 범죄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천명한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입니다. 일본이 끝까지 이러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

제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해결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 정부는 한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반평화적인 경제 제재를 철회하라
2. 일본 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3.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4.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위 서명을 모아 8월 15일 일본정부에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는 서명운동 관련 소식을 보내드리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후 폐기합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사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참가단체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 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 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간토한일제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총 18개 단체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Но главное — это регуляр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оэтому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мы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ам здесь,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 подел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клуб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велоспорта» Игорь Балла.

Сегодня клуб любителей экстрим-спорта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Самому юному райдеру едва исполнилось 8 лет, самому старшему — около пятидесяти

사할린의 마야코프스키 팬들 시인의 밤 개최

역사상 가장 빛나고 위대한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 애호가들의 만남이 사할린 일반과학 도서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그의 탄생 126주년이 되는 해다. 행사에서 애호가들은 마야코프스키의 약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하며 시를 낭독했다.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는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 진실로 살아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화가로서도 활동하고, 연극을 연출하고, 무대에서 연극도 하고, 심지어 영화 시나리오도 썼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지는 못한다. 사할린 문학교사인 왈레리 포카타이킨은 마야코프스키를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인생 전체를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어린 시절을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 바로 그가 위대한 천재 작가이기 때문이다."라며 만남에 참석한 한 교사가 말했다.

저녁 만남의 주제 중 하나는 마야코프스키의 음악이었다. 그는 대단히 굵은 바리톤의 음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기차 시간을 놓치자 그는 기관사에게 '멈춰!' 라고 소리쳤다. 이에 놀란 기관사가 명령하는 목소리에 기차를 세웠다고 한다.

모임에서 시인의 유산은 여러 세대의 대표자들을 한 마음이 되게 했다. 가장 어린 참석자인 복단 심코는 유명한 시 '꼬맹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물었다. '좋다'는 게 무엇인지, '나쁘다'는 게 무엇인지...'를 낭독했다. 도서관에서는 마야코프스키 책의 초판을 선보였다. 시 애호가들의 다음 행사는 공원에서 참석자들의 자작시들을 낭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Сахалинские поклонники Маяковского провели вечер поэзии

Встречу поклонников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ярких и противоречивых поэтов прошлого века — Владимира Маяковского — прове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Ее приурочили к 126-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творц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озвучили малоизвестные факты его биографии, спорили и читали стихи.

Владимир Маяковски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 сих пор жив для своих поклонников. Однако не каждый знает, что поэт пробовал себя как художник, ставил спектакли, играл на сцене и даже написал сценарий фильма. Сахалинец Валерий Покатайкин, учитель литературы, уверен, что читать Маяковского нужно во все периоды жизни, начиная с детства.

— Если человек вышел из детского возраста, то, естественно, нужно брать быка за рога, и читать все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Это великий, гениальный писатель, — убежден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торый то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встрече в библиотеке.

Одна из тем вечера — Маяковский в музыке. Поэт обладал мощнейшим баритоном. Есть даже легенда, как он, опаздывая на поезд, крикнул машинисту «Стой!». И тот, испугавшись командного голоса, остановил состав.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наследие поэта объедини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И даже самые маленькие читали стихи. Юный Богдан Шимко продекламировал знаменитое: «Крошка сын к отцу пришел, и спросила кроха...»

В библиотеке показывали и уникальные книги — первые изд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эта.

Следую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любители поэзии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в сквере, где участники прочитают уже свои стихи.

야외 댄스 축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초대

27일 낮 12시 유즈노 사할린스크 콤사몰스카야거리의 280번 마당에서 <우리 마당에서>라는 문화 오락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사할린 댄스의 세계>단체 활동이 주최, 사회봉사센터의 후원으로 조성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성인부 댄스팀이 공연, 활동교실에서는 공공체조와 왈츠 강습, 음악인 세르게이 한과 가수들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댄스 프로그램에 모두를 초대한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праздник танца во дворе

27 июля в 12:00 во дворе №280 на улице Комсомольск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А у нас во дворе", организуемое обще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мир"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В программе — выступления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зрослых,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фигурному вальсу и социальным танцам, танцеваль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участием певца и музыканта Сергея Хана,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클라우드는 무슨 구름?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는 충격이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을 이기다니! 알파고는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만든 go(棋; 바둑)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야심찬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 구글의 모(母)회사이다. 사실 구글이 돈 벌어 만든 모기업, 알파벳이 '유튜브'를 사들였고 이번엔 '루커(Looker)'라는 회사를 3조 원이나 주고 사는 모양이다.

조기조
(曹基祚)박사
경남대학교 기획
처장, 경영대학
원장, 대학원장,
명예교수(현)
Korean Times
of Utah 번역가,
칼럼니스트



'클라우드'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뜬 구름 같은 이야기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자료를 불러오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서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라는 말이 생겨났다. 값비싼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필요할 때 내려쓰거나 쓴 만큼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하드웨어도 사서 관리하며 쓰는 것보다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것을 서비스형 인프라스트럭처(IaaS)라고 한다. 소위, 호스팅이라는 것이다. 비싼 땅을 사고 돈 들여 회사의 사옥을 건설하는 것보다 편리한 위치에 있는 대형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자금 활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G 메일이나 Hot 메일 등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5기가(giga) 정도의 메모리를 준다. 약간의 사용료를 내면 100기가 정도를 받아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둘 수 있다. 이것은 메모리의 값이 내린 탓도 있지만 통신 속도가 빨라져서 남의 공간에 저장해두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마존은 'AWS'라는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이 원하면 컴퓨터와 프로그램과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에 앞서갔는데 미래를 꿰뚫어 본 것이다. MS와 IBM도 일찍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구글이 뒤늦게 눈독을 들이고 뛰어 들었다. 왜냐하면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 모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메모리)은 엄청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루커'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기에 구글이 군침을 흘리는가? 만약 누가 1조원을 주면서 사업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냥 국채를 사서 낮은 이자라도 받을까 싶다. 사업을 한다고 벌었다가 날려먹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경기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상을 소상히 알고 시장을 예측하여 업종을 골라주고 경영전략을 세워주며 성과관리를 해 주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 꿈같은 이야기다. 구글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고 있다. 검색하는 사람들을 지역, 시간, 연령, 성별, 소득, 학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거기에 맞는 전략을 편다면 사업은 대박날 것이다.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나 표 등으로 만들어 보여주면 금상첨화일 것이고, '루커'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는 기업이다.

IBM은 빨간 모자로 알려진 '레드햇'을 인수했다. MS는 '깃허브'를 인수했다. 애플은 'SAP'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왜 인수하는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은 신생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실패의 위험이 없고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 광통신 시대에 메모리는 커지고 가격은 내려갔다. 통신 속도조차 빨라지니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게임 등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 폭증하는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센터는 마치 도서관의 서고처럼 엄청난 크기의 공간에 컴퓨터와 메모리를 계속 증설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기를 가동하고 열을 식히며 향온습을 위하여 물과 전력소비가 많다. 최근에 네이버가 제 2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그러자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달려들었다. 전자파가 우려되어 반대했다는데 냉큼 꺼내 들어온 복을 걷어 찬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애가 타는데 기가 찰 일 아닌가? 클라우드는 뜬구름이 아니다!

김남중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의 밤

(3면의 계속)

그의 자전거 여행 경험을 담은 <불량 자전거 여행>에서 주인공 호진이는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며 "내가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위기를 맞은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르막과 내리막 길을 달리는 중에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다."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다른 산이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닌, 온 힘과 땀으로 굴러야 하는 자전거를 타고 목적과 희망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인생의 모습을 풀어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수평선 학교>는 범선의 선원으로 직접 일본에 가서 나가사키 범선 축제에 참가하여 체험한 경험과 상상력을 더해 나온 작품이었다

바닷길은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길로, 배는 인생을 항해하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기술과 노력에 비유했다. 이 작품에서는 범선 항해뿐 아니라 역사적인 쟁점도 가미해 러시아, 중국, 한국이 일본과 벌이는 영토 분쟁을 소재로 더해 재미를 더했다고 소개했다.

김 작가가 그동안 바다와 땅에 대한 작품들을 마무리 했는데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남았다고 하자 참석자 가운데 '우주와 심해에 대한 글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나왔다.

참석자의 '글을 쓰기 위해 험난한 여행과

체험을 꼭 해야만 하는지?'라는 질문에 김 작가는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지라 어릴뿐 정보로 작품을 쓰면 눈밝은 독자들이 알아채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와 실제적 체험을 토대로 작품을 쓰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온작품 읽기' 라는 학교 문학수업 방식도 소개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정된 도서 가운데 한 작품을 골라 몇 개월에 걸쳐 작품 읽기,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작품에 나온 활동을 따라 해봄으로 작품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을 진행하는 학습방법이다. 이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읽어도 눈과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실제적으로 느껴보며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김 작가의 작품 중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도 있는데 동화집 <자존심>과 자전거를 소재로 한 <멋져부러 세발자전거>이다.

긴 시간이었지만 흥미로운 작품세계를 더 많이 알기에는 부족한 듯 해서 아쉬웠다. 김 작가의 수많은 작품 중 하나를 사할린의 학생들과 함께 연극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문학의 밤>행사 말미에는 가가린호텔에서 다과를 제공하여 참석자 전원이 유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김남중 작가의 작품 가운데 <미소의 여왕>을 러시아어 번역판으로 증정했다.

(취재: 글/박혜신, 사진/이예식)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ч. 6 ст. 42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уведомляе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есплатной и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кандидата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едвыборной агитации кандидатов на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именование СМ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1.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составит: в пятницу – половина полосы формата А3, кроме первой полосы, 477 кв. см.

2.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составит: в пятницу - половина полоса формата А3, кроме первой полосы, 477 кв. см.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ляет 1908 квадратных сантиметров.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ляет 1908 квадратных сантиметров.

Стоимость 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валюте РФ) размещения предвыборных агит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составляет 90 руб. 1 кв. см.

Оплата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о безналичной форме.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은 본사 일을 적극 도우시는 이정선 씨의 모친 정점에 씨가 2019년 7월 25일 86세를 일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중환 끝에 별세하였음을 알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